

제3과 부르심의 목적

오늘은 부르심 세 번째 시간,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성품처럼 모든 일에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십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 ()을 가지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되게 기대하시는 목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개인을 향하신 목적입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되게 기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 ()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① ()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룩’입니다. 즉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7)

성도에게 ‘거룩’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거룩’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3a)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1)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24-26)

구약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신 ‘거룩의 요구’는 신약에서 선택된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15-16)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11-12)

→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즉 ‘세상의 더러운 일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② ()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공통된 목적은 바로 ‘성숙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9)

→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목자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를 가까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를 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구와 사귀느냐는 그 인생을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4)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11-15)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은 그리고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③ ()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통된 목적 세 번째는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46-48)

→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것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④ ()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네 번째 목적은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15)

→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19-21)

성경은 성도들에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⑤ ()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섯 번째는 바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9)

→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13-14)

→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즉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1-3)

우리는 그래서 ‘복덩어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즉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1)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범사의 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범사에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목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